

2010.06.28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 농무부, 한국의 쌀 재고량 164만 톤 전망

[USDA 자료 (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, 2010.06.10) 주요 내용]

- 미국 농무부는 2010 양곡연도의 한국 쌀 재고량은 2009년의 146만톤보다 12.3% 증가한 164만 톤으로 전망함.
 -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6.5% 감소한 460만 톤으로 예상하였으며, 올해 수입량은 33만 톤으로 예상함.
 - 소비량은 474만 톤으로 전년대비 0.2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수출은 약 1만 톤으로 전망함.
 - 한국의 쌀 재고량은 전 세계 예상재고량 9,627만 톤의 1.7%에 해당함.
- 한편 2009년에는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.6% 증가한 492만 톤이 생산되었으며, MMA 수입물량이 3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, 소비는 475만 톤에 그쳐 쌀 재고량이 146만 톤(전년대비 46% 증가)으로 증가하였음.

□ 축산 및 가금업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법안 입법예고

[USDA 보도자료(2010.06.18) 주요 내용]

- 미 농무부 Vilsack 장관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축산 및 가금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법안 입법을 예고함.
 - 이는 축산농가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임.
- 최근 축산농가수는 집약화 및 수직계열화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, 그에 따라 축산농가의 발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불

공정 거래행위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.

- 1980년대 66만 6천개의 돼지 농가가 2009년 기준 7만 1천가구로 축소되었으며, 같은 기간 비육우 농가는 160만 가구에서 95만 가구로 감소한 상황임.
- 1980년대에는 비육우 사육농가는 소매가격 대비 62.0%에 해당하는 수입을 보장받았으나, 2009년에는 42.5%로 감소하였으며, 양계업자는 닭 1마리당 34센트의 수익을 얻는 반면, 수직 계열사는 평균 3.23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.